펫케어페스티벌·테마파크·캠핑축제···

반려동물과 바람쐬러 가실래요?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좋은 곳

덕평휴게소 테마파크 '달려라코코' 수의사·훈련사 참여 프로그램 운영

셀럽 참가 펫케어페스티벌 12~14일 캠핑축제 '마이리틀 패밀리' 6월 열려



연휴가 많은 5월, 일찍 무더워진 날씨에 미리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연휴라고 해도 여행계획을 잡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에 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일 뿐더러 함 께 해외여행을 위해선 국가 간 반려동물 취급 규 정 체크 등 복잡한 준비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기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인들 의 발길을 끌기 위해 동물과 함께 입장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및 행사들이 다양하게 출현하 는 추세다. 캠핑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 정착 페스티벌까지 서울 근교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무엇이 있는 지 확인하고 반려동물과 즐거운 추 억을 쌓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자.

●반려견을 위한 전문 파크 '달려라코코'

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덕평자연휴게소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테마파크 '달려라코코'가 자리 잡고 있다.

의사와 훈련사, 반려동물학과 교수가 함께해 좀 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 전문화 된 '달려라코코'는 교육부터 힐링까 지 모든 케어서비스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

반려견은 '달려라코코' 천연잔디시설에서 마 음껏 뛰놀며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미니 수영장 에서 수영을 즐기며 무더위를 잊는다. 반려인과 함께 즐기는 애견카페는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 와 교류를 통해 사회화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일 석이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로 인테리어한 건물 중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달려라코코'는 최근 관람 객들이 증가하면서 애견 놀이터를 증축하고 장 거리 여행 시 애견을 맡아주는 애견 전용 호텔 코코하우스도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MBC 마이리틀패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시 숙박이용에 제한을 느꼈던 반려인이라면 반가울 소식이 전해졌다.

나무가 울창한 숲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 축제 '마이리틀 패밀리'가 개최된 다. 문화방송 MBC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마이리틀 패밀리'는 오는 6월 가평 자라섬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핑축제는 유명 뮤지션들의 라이브공 연과 특별한 캠핑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숲 속캠핑', '카라반' 등 4개 캠핑존으로 나눠져 있 는 '마이리틀패밀리' 축제는 원하는 힐링 형태 에 따라 선택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펫놀이터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기존 애견쉼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수 개선을 위한 인식표 달아주기, 전문가의 강연 등

●푸른 잔디 위 펼쳐지는 문화축제 '펫케어페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펫 케어페스티벌'이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안산 와 스타디움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축제에는 MC 김제동과 조우종 아나운서, 가수 토니안, 레이 디제인 등 애견·애묘인으로 잘 알려진 유명 셀 럽들이 참석해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삶 에 대해 참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 서트가 진행된다. 또 잔디밭 위에서 반려견과 함께 요가를 체험해보는 '도그 요가'도 준비돼 있다.

함께 호흡하고 몸을 밀착해 서로의 심박수를 느끼는 동안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에 교감이 이뤄져 한층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펫케어페스티벌 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족단위 관람객들 과, 예비 반려인들이 참석해 '생명존중', '행복 공존'을 모토로 '도전 골든벨', '사생대회' 등 여 러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해 의미 있는 페스티 벌로 꾸며질 전망이다.

덕평휴게소에 위치한 반려동물을 위한 테마파크 '달려 라 코코'에는 많은 반려인들이 방문한다(위). 올바른 반려동물 정착을 위한 문화축제 '펫케어페스티벌'이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안산에서 열린다.





반려동물도 어릴 때 사회화 교육 필요하다



최인영의 반려동물 SOS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어떻게 가족구성 원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호자와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선 우선 동물이 사람 사는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응하는 첫 단계를 '사회 화' 교육이라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 자라면 이 과정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는 대표적으로 무리를 이뤄 사는 사회적 인 동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개에게도 사회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반

려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양이는 단독 생활이 가능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면 사회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성장기 동안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라나게 된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반려동 물 입양 후 최소한의 예방접종을 마칠 때까지 강아지를 절대 집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때는 국내에 반려동물 전염병이 폭발적 인 수준으로 발생한 바 있다. 그래서 분양되는 어린 강아지들이 파보바이러스 장염이나 개홍 역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례도 빈번히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이 강화돼 전염병 발생이 상당 수준 이하로 떨어 졌다. 물론 위험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전염병 예방 이상으로 사회화 또한 반려견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나고 교류해야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사회화 부족은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동물들을 만들고 이는 곧 사람과 동물 모두에 게 불행으로 다가온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사회 화가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렇다 면 왜 굳이 이른 시기에 사회화를 진행해야 하

답은 간단하다. 어릴 때 모든 부분에 있어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대뇌피 질이 성숙하지 않아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 고 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볼 가 능성이 높다. 강아지의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 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사교적 인 때도 바로 이 시기다. 그러므로 강아지일 때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과 동물들을 만

일반적으로 사회화에 적합한 시기로 강아 지는 생후 3주, 늦어도 14주 이내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시기가 더 빠르다. 생후 7주 이전 에 사회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물론 사회화 과정에서 감염이나 사고에 대 해서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반려동물 이 사회화를 위한 환경을 접할 때 체벌을 한다

든지 공포를 느낄만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낯선 환경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겨 이후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한다. 이러한 주의점 몇 가지 만 보호자가 조심한다면 반려동물이 성공적인 사회화 과정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러브펫동물병원 대표원장

📆 최인영 수의사

▲러브펫동물병원 대표원장(타임스퀘 어점, 홈플러스 중계점) ▲SK BTV 85번 마 이펫티비-신지의 궁금해요 펫닥터 MC ▲㈜ 러브펫코리아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수의사 회 이사 ▲서울시 수의사회-반려동물 행동의 학팀 수의사 ▲영등포수의사회 부회장 ▲한 국중고육상연맹 이사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